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3
----------	------

발의연월일 : 2024. 8. 30.

발 의 자 : 임미애 · 김용민 · 백승아
강훈식 · 김남희 · 임오경
김한규 · 진성준 · 위성곤
복기왕 · 주철현 · 김 윤
김용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제1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사람</u> ----- ----- ----- ----- ----- ----- ----- ----- ----- ----- <u>7년</u> ----- <u>7천만원</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 ----- ----- ----- ----- <u>10년</u> ----- -----.
<u><신 설></u>	④ <u>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p>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⑤ -----제4항 ----- ----- -----.</p>
--	--